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1. 1.(수) 06:00 < 11.1.(수) 석간 > 배포 2023. 10. 31.(화)

중남미 핵심 거점 국가 칠레와 핵심광물 공급망, 재생에너지, 수소 등 전방위적 협력 공고화

- 장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칠레 방문
- 핵심광물, 수소, 무역 투자, 전자, 자동차 등 관련 경제사절단 39명 동행
- 양국 간 투자 협력 촉진 양해각서(MOU), 핵심광물 사업(프로젝트) 금융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핵심광물 공급망 등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남미 국가와의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0. 29.(일)~11. 1.(수) 간 칠레를 방문하였다. 이번 출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입은행, 남동발전, 남부발전, 광해광업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칼, SK어스온, HD현대 인프라코어, 고려아연, 이건산업 등 우리나라 대표 기관과 기업들로 구성된 3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였다.

칠레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그린 수소 등 미래 첨단 신산업 분야 우리의 핵심 협력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방문규 장관은 10. 31.(화) 반 클라베렌(van Klaveren)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양국이 60년이 넘게 쌓아온 관계를 발판으로 미래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동반관계(파트너십)를 구축해 갈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방 장관은 30일(월)~31일(화)간 파르도(Pardow) 에너지부 장관, 그라우(Grau) 경제개발관광부 장관, 윌리엄스(Williams) 광업부 장관과도 잇달아 면담하고 핵심광물, 수소, 무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난 9월 우리가 전 세계에 제안한 '무탄소(CF) 연합'에 대한 칠레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요청하였다.

한편 30일(월) 경제개발관광부 장관과의 면담 직후, 양 장관 임석 하에 양국 투자진흥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칠레 투자청(Invest Chile) 간 투자 협력 양해각서(MOU), 한국수출입은행과 칠레 국영구리회사(Codelco, 세계 1위 구리 생산기업)간 금융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국 기관 간 주요 사업(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특히, 핵심광물인 구리의 안정적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협력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대한상의와 칠레산업협회 주관으로 양국의 주요 경제인들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국 업계 간 포괄적·전략적 협력을 위한 한-칠레 사업원탁회의(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중남미대양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류동희 (044-203-5630)
		담당자	사무관	김민수 (044-203-5632)
			주무관	김승재 (044-203-563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